



Lee in mississipi, Absence Of Being series



Absence Of Being On Waking Dreams

Susan Burstine 수잔 버스타인은 미국 시카고 출신으로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두고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상업 사진가로, 순수미술 사진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류 작가이다. 가족을 잃은 이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힘들게 해온 '이경증'을 극복하기 위해 사진으로 자신의 몸을 묘사하기 시작한 그녀는 '꿈'이라는 무의식의 세계를 사진작업을 통해 의식세계로 불러내 이미지화 한다. '꿈'이라는 일관된 소재로 오랫동안 작업해온 그녀의 작품들은 현재 다수의 미국과 유럽지역의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수잔은 사진가로 활동하는 동시에 영국에서 발행하는 'B&W Photography' 잡지에 기고하는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면서 깊이 있는 사진예술의 세계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존재의 부재

무의식의 꿈을 이미지화 하는 수잔 벌스타인

'꿈'은 이미 여러 예술가들이 다뤘었으며 특히 몽환적이며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미지들은 순수미술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상업사진에서도 시각적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잔 벌스타인(Susan Burstina)이 꿈을 표현한 사진들이 특별한 이유는 오랜 세월 그녀 자신의 꿈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몽환적인 신비모험과 아름다운 이미지에서 스며 올라오는 작가의 깊은 심리적 아름다움과 고통이 그대로 보는 이의 감성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 The Last Goodbye, Absence Of Being series
- As above so below, Absence Of Being series
- Ticking echoes, Absen

야경중 시달려온 작가의 극복기

작업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수련의 작품은 늘 자신이 꾸는 '꿈'의 이야기로 채워졌다. 꿈을 소재로 사진 속 이야기를 시각하게 된 때에는 그녀의 특별한 시선과 허풍이 있다. 그녀의 허풍은 현재 그녀가 사진가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야경중에 시달려 왔다. 야경중은 수면장애의 일종으로 가까운 사람을 잃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츰 악몽이 시달리며 꿈에서 잠 깨어날 수 없는 상태에 오래 머무르는 증상으로,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곤 하지만 수련의 경우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평생을 야경중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어린 시절 그녀가 악몽에 시달리곤 할 때마다 어머니는 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밤사이 꿈 악몽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다. 이 방법은 어린 수련에게 꽤 효과적이었으며, 자신이 꿈 악몽을 그림으로써 꿈에 나타난 트라우마의 형태를 알아내고 병이 호전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서른세 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싸이면서 야경중이 재발하였다. 또 다시 야경중과 악몽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수련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그림으로 악몽을 그려내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림 대신 시선으로 꿈 이야기를 시각하게 된다.



••



•••



악몽 속 장면을 현실에서 연출한 사진

수잔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진의 존재를 알게 해해주고 사진가로서의 재능을 발견한 사람 역시 그녀의 어머니였다. 평소 골동품 카메라를 수집해왔던 어머니는 수잔이 여덟살이 되던 해에 골동품 카메라 한대를 쥐어주면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권했다. 처음으로 필름 한롤을 다 채워 사진을 찍은 그녀는 사진이 꽤 흥미로운 일임을 알게 됐다. 수잔이 찍은 사진을 현상하며 이미지를 훑어본 어머니는 언젠가 딸이 사진가가 될 것이라고 그때 이미 예견했었다.

점점 더 사진에 빠져드는 수잔을 위해 그녀의 아버지는 집 지하실에 딸을 위한 작은 암실을 마련해주었다. 그녀는 십대 시절의 대부분을 암실에서 시간을 보낼 만큼 사진에 빠져들었고, 열네 살이 되던 해부터는 전문 사진가 밑에서 사진을 배우며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사진의 기초를 다져가며 열정을 키웠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로스앤젤레스로 거처를 옮겨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종사하기도 했던 수잔은 어머니의 죽음을 맞아 그 충격으로 야경증이 재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진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예술과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그녀의 작품에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수잔은 악몽과 야경증으로 시달린 힘든 밤을 보내고 나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신이 꿈속에서 기록한다. 그리고 꿈의 내용에 대한 상징과 은유 또는 직접적인 장면을 연출한 사진을 만들어낸다. 꿈속 흐릿한 기억을 조금이라도 더 되살려내기 위해 모든 작업은 꿈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하루 이내에 끝난다.

직접 만든 22대의 수제 카메라와 렌즈들

수잔이 이렇듯 자신만의 사진 스타일로 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몇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카메라를 사용해 보았지만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카메라나 렌즈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한때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이기도 했던 아버지에게 이같은 고민을 털어놓았고, 딸의 고민을 들은 아버지는 그녀에게 자신만의 카메라와 렌즈를 직접 만들기를 제



...

- Michigan and Monroe 6:42AM, Absence Of Being series
- Impasse, Absence Of Being series
- Around the bend, Absence Of Being series





- Bridge to nowhere, On Waking Dreams series
- Circuitous, On Waking Dreams series
- The road most traveled, On Waking Dreams series



• Glide, On Waking Dreams series
 •• The approach, On Waking Dreams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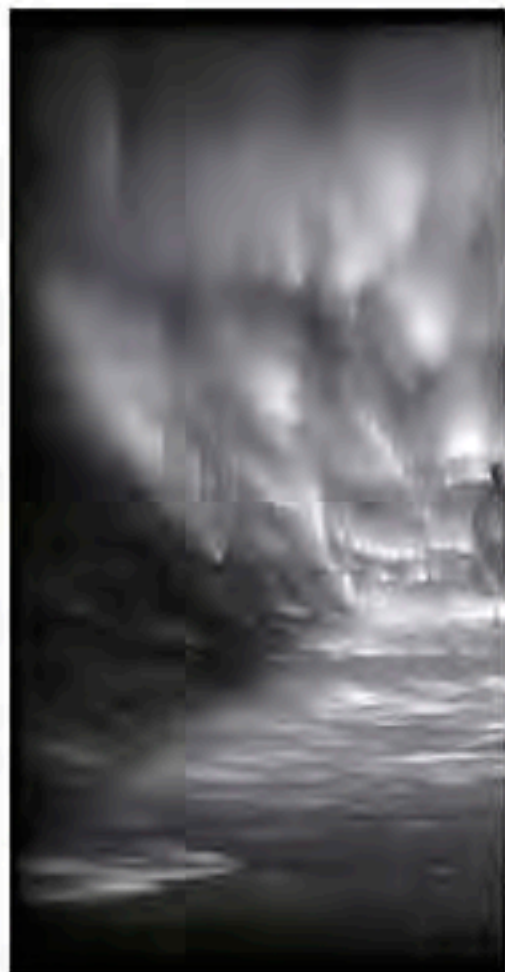
안했다. 그 뒤로 수장은 자신이 직접 만든, 밥 그대로 핸드메이드 카메라와 렌즈를 사용해 촬영 어경을 이어오고 있다. 카메라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들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 값싼 재료들이다. 가끔은 골동품 카메라를 분해해서 나온 부품을 다시 조합, 조립해 새로운 카메라로 만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만든 카메라만 22대에 달하고, 카메라들은 겉보기에는 모두 비슷한 보이지만 내부는 제각각이다.

2008년 그녀가 처음 만든 카메라는 작은 장난감 카메라 여러 대에서 나온 부품을 다시 조립한 것이다. 이 카메라로 자신의 반려견의 코를 찍은 'Paw's Nose'는 가장 처음 성공한 테스트 이미지이다. 'On Waking Dreams' 시리즈의 'In Passage'는 꿈 이야기를 중상공한 첫 이미지로 2005년 6월 런던 팍킹턴역(Packington Station)의 7.7 지하철 폭파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촬영된 사진이다.

이렇듯 수제 카메라로 촬영을 감행한다는 것은 작가 입장에서는 예측을 불어하는 수많은 상황을 감수해야 하며 일반적인 촬영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실재의 가능성을 안고 가야 하는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이 이런 촬영 어경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한계들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문충과 정권력이 발휘되어 자신을 가장 순직하게 드러내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sence of Being 존재의 부재

수장의 모든 사진들은 '상실'을 이야기한다.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뒤돌아보아야 할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도록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Absence of Being'(존재의 부재) 시리즈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을 그린 작품이라면 'Shadow'(그림자) 시리즈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이 총도 남겨진 그 시점부터 그녀의 작업은 확연히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 작업을 일컬어 '현재에 남은 과거의 흔적을 찾아가는 사진들'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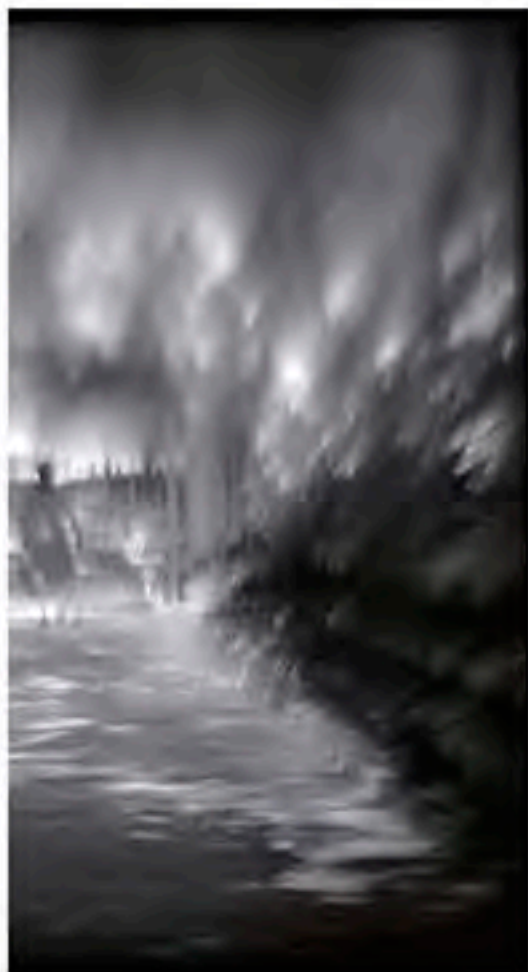


- Threshold, Flight series
- At the gates, Flight series
- In the nest, Flight series

수준은 작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준 특별으로만 촬영해왔다. 자신이 보아온 꿈들이 항상 특별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컬러 작업을 시작했지만 꿈속 장면이 컬러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무의식 상태인 꿈속에서 본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고, 그 과정에서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카메라와 렌즈를 직접 만드는 일부 터 킴을 현상과 인쇄까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낸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그녀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그런 자신을 스스로 심각한 완벽주의자라고도 말한다. 이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이며, 가장 좋은 작품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 때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또한 사진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녀는 자신이 소중하고 싶은 것을 사진으로 표현하며, 또한 사진 이미지를 만들면서 자신과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대면한다. 여당초 사진기가 되려는 원대한 꿈을 가졌기보다 이경중을 극복하는 심리치료의 한 과정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이라 항상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그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단지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좇았다면 자신이나 보는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사진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AM**

글 | 대학강력원기사(대리), 디자인 | 장준일(기자)

All images © Susan Burdne



Selected Solo Exhibition

- October 2013, The University of Maine Museum of Art, Bangor, Maine
- August 2013, Center For Photographic Art, Carmel, CA
- March 2013, The Center For Fine Art Photography, North Gallery, Fort Collins, CO
- February 2013, Frank Pictures Gallery, Santa Monica, CA
- April 2012, 'Absence of Being', Corden Potts Gallery, San Francisco, CA
- January 2012, 'Within Shadows' Texas Womens University, Denton, Texas
- October 2011, Galerie Hiltawski, Berlin, Germany
- September 2011, 'Within Shadows' ADI Gallery, Gendry, Switzerland
- November 2010, 'Within Shadows' Moran Fine Art, Washington D.C
- December 2009, 'Within Shadows', The Canary Gallery, New Orleans, LA
- March 2008, 'Introspection', Wolf Space Gallery, Seattle, WA

Collection

- Museum of Fine Art Houston, Houston, TX
- UT Texas, Jerry & Marilyn Comer Collection, Dallas, TX
- Candela Collection, Richmond, Virginia
- ResMed, San Diego, CA
- The Capital Group, Los Angeles, CA
- Unire Real Estate Group, Brea, CA
- The Galad Group, Independence, Ohio
- Elgea inc, Montreal, Canada

Susan Burstine
www.susanburstine.com